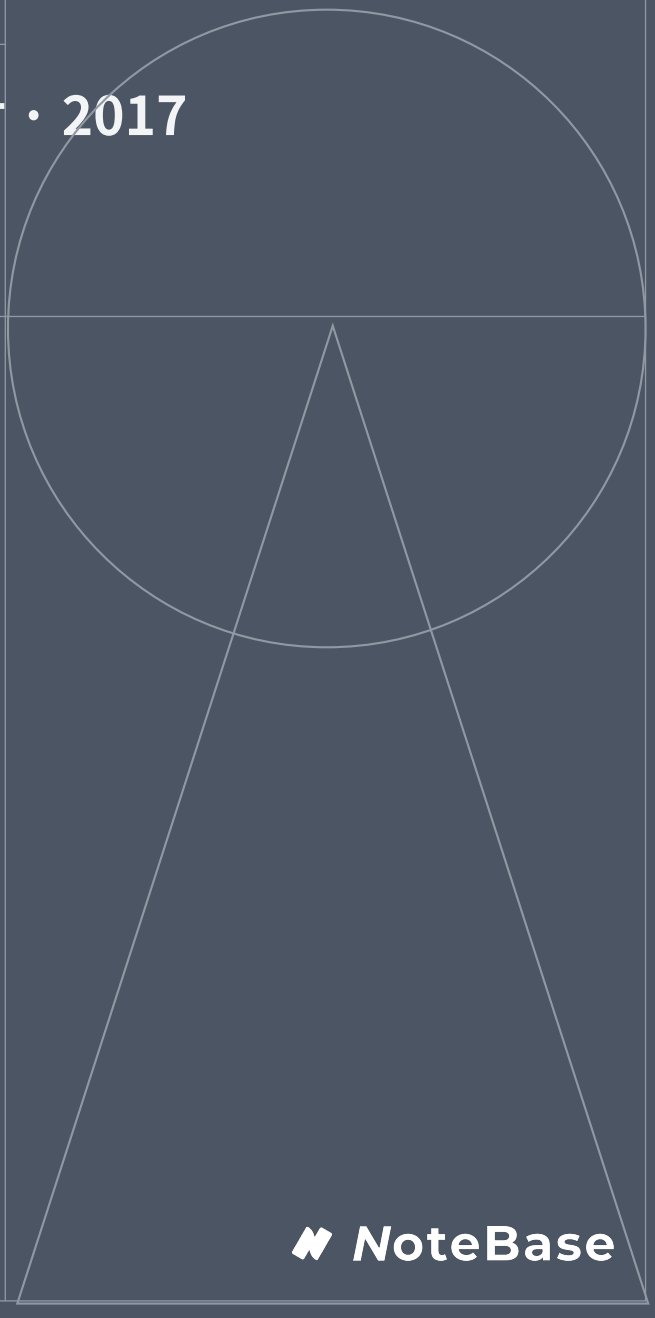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17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17

문 1. ㈜서울의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은 ₩350,000이다. 2017년도에 ㈜서울은 임의적립금을 ₩50,000, 기타법정적립금을 ₩60,000 적립할 예정이다. 이익준비금 적립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330,000이라면 2017년도 당기순이익과 배당 최대금액은 얼마인가? (단, ㈜서울의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1/2에 미달되며 법정 최소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

① 당기순이익: ₩90,000, 배당 최대금액: ₩300,000

② 당기순이익: ₩90,000, 배당 최대금액: ₩330,000

③ 당기순이익: ₩130,000, 배당 최대금액: ₩300,000

④ 당기순이익: ₩130,000, 배당 최대금액: ₩33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익준비금 적립 전 배당가능이익에서 최소 이익준비금을 먼저 반영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 당기순이익과 최대 배당액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은 350,000원이다.
2017년도 예정 적립액은 임의적립금 50,000원, 기타법정적립금 60,000원이다.
이익준비금 적립 전 배당가능이익은 330,000원이다.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1/2에 미달하는 동안 배당액의 10%를 최소 적립한다.

사용할 공식

최대 배당액을 D라 하면 이익준비금은 $0.1D$이다.
따라서 $D + 0.1D = 330{,}000$, 즉 $1.1D = 330{,}000$이다.
또한 330,000 = 350,000 + 당기순이익 - 50,000 - 60,000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의 330,000원이 이익준비금을 빼기 전 배당가능이익이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최대 배당액을 D라 두면, 이익준비금은 $0.1D$이므로 배당가능이익 330,000원은 $D + 0.1D$와 같다.
2. $1.1D = 330{,}000$이므로 $D = 300{,}000$이다. 따라서 이익준비금은 30,000원이다.
3. 이익준비금 적립 전 배당가능이익은 350,000 + 당기순이익 - 50,000 - 60,000 = 330,000이므로 당기순이익은 90,000원이다.

선지 판단

1번 O: 당기순이익 90,000원, 배당 최대금액 300,000원으로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2번 X: 당기순이익 90,000원은 맞지만 배당 최대금액 330,000원이 틀리다. 330,000원은 이익준비금 적립 전 금액이므로 실제 배당액은 이익준비금 30,000원을 뺀 300,000원이다. 틀린 표현은 '배당 최대금액 330,000원'이고, 올바르게는 '배당 최대금액 300,000원'이다.
3번 X: 배당 최대금액 300,000원은 맞지만 당기순이익 130,000원이 틀리다. 330,000원은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50,000원에 당기순이익을 더하고 임의적립금 50,000원과 기타법정적립금 60,000원을 뺀 값이므로 당기순이익은 90,000원이다. 틀린 표현은 '당기순이익 130,000원'이고, 올바르게는 '당기순이익 90,000원'이다.
4번 X: 당기순이익과 배당 최대금액을 모두 잘못 짝지은 선택지이다. 당기순이익은 90,000원이고, 배당 최대금액도 330,000원이 아니라 300,000원이다. 틀린 표현은 '당기순이익 130,000원, 배당 최대금액 330,000원'이고, 올바르게는 '당기순이익 90,000원, 배당 최대금액 30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330,000원을 곧바로 배당액으로 보면 이익준비금 10% 적립을 누락하게 된다. 또 당기순이익을 역산할 때 $350{,}000 - 330{,}000 + 50{,}000 + 60{,}000$처럼 부호를 뒤집으면 130,000원이라는 오답이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배당 계산 문제는 먼저 제시된 배당가능이익이 이익준비금 적립 전 금액인지 후 금액인지부터 확인한다. 적립 전 금액이면 배당액과 이익준비금을 함께 두고 최대 배당액을 역산한 뒤,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각종 적립금을 부호대로 넣어 당기순이익을 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배당가능이익 적립 전 금액이 주어지면 최대 배당액은 그 전액이 아니라 '배당액 + 이익준비금'을 합한 한도 안에서 결정된다.

NoteBase

문 2. (주)서울의 2017년 중 상품매매 내역은 다음과 같고, 상품의 회계처리는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르고 있다. (주)서울의 2017년 상품매출원가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경우 각각 얼마인가?

일자	거래	수량	1개당 매입단가	금액
2017년 초	–	50개	₩100	₩5,000
3월 1일	매입	100개	₩110	₩11,000
5월 1일	매출	60개	–	–
9월 1일	매입	50개	₩120	₩6,000
10월 1일	매출	90개	–	–

① 선입선출법: ₩15,000, 평균법: ₩15,500

② 선입선출법: ₩15,500, 평균법: ₩15,000

③ 선입선출법: ₩16,000, 평균법: ₩16,500

④ 선입선출법: ₩16,500, 평균법: ₩16,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지재고조사법에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으로 상품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초재고는 50개, 개당 100원, 금액 5,000원이다.
3월 1일 매입은 100개, 개당 110원, 금액 11,000원이다.
9월 1일 매입은 50개, 개당 120원, 금액 6,000원이다.
매출은 5월 1일 60개, 10월 1일 90개로 합계 150개이다.
실지재고조사법이므로 평균법은 기간 전체 재고의 총평균단가를 사용한다.

사용할 공식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재고가 먼저 매출된 것으로 본다.
평균법의 총평균단가는 총매입가능원가 / 총매입가능수량이다.
상품매출원가는 총평균단가 × 매출수량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기간 전체의 평균단가로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를 나누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선입선출법은 5월 1일 매출 60개를 기초재고 50개 =5,000원와 3월 1일 매입분 10개 =1,100원로 계산하므로 6,100원이다.
그 뒤 남은 재고는 3월 1일 매입분 90개이고, 10월 1일 매출 90개는 이 90개가 모두 나가므로 9,900원이다.
따라서 선입선출법 상품매출원가는 6,100원 + 9,900원 = 16,000원이다.
평균법은 총매입가능원가가 5,000원 + 11,000원 + 6,000원 = 22,000원, 총매입가능수량이 50개 + 100개 + 50개 = 200개이므로 총평균단가는 22,000원 / 200개 = 110원이다.
매출수량 합계는 150개이므로 평균법 상품매출원가는 110원 × 150개 = 16,5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선입선출법 15,000원"이 틀렸다. 선입선출법 상품매출원가는 5월 1일 6,100원과 10월 1일 9,900원의 합계 16,000원이다.
"평균법 15,500원"도 틀렸다. 실지재고조사법의 평균법은 총평균단가 110원을 매출 150개에 곱하므로 16,500원이다.
② X
"선입선출법 15,500원"이 틀렸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취득한 100원 재고와 110원 재고부터 순서대로 매출원가에 반영되므로 16,000원이 된다.
"평균법 15,000원"도 틀렸다. 평균법의 올바른 금액은 16,500원이다.
③ O
"선입선출법 16,000원, 평균법 16,500원"이 모두 맞다. 선입선출법은 6,100원과 9,900원의 합계이고, 평균법은 총평균단가 110원에 매출 150개를 곱한 값이다.
④ X
"선입선출법 16,500원"이 틀렸다. 16,500원은 평균법 금액이지 선입선출법 금액이 아니다.
"평균법 16,000원"도 틀렸다. 16,000원은 선입선출법 금액이지 평균법 금액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실지재고조사법의 평균법을 거래 시점마다 다시 계산하는 이동평균법처럼 처리하면 오답이 된다.
5월 1일 매출 60개를 전부 110원으로 잡으면 기초재고 50개가 빠져 선입선출법 금액이 틀어진다.
16,000원과 16,500원을 서로 뒤바꾸는 선택지가 대표적인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지재고조사법 문구가 보이면 평균법이 총평균법인지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총매입가능원가와 총매입가능수량을 먼저 적고, 선입선출법은 거래 순서대로 몇 개가 빠지는지만 추적하면 된다.
마지막에는 선입선출법 16,000원과 평균법 16,500원이 서로 뒤바뀌지 않았는지 검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실지재고조사법의 평균법은 기간 전체 평균단가를 쓰고,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재고부터 원가로 나간다.

NoteBase

문 3. 다음 중 종업원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인식한다.

②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닌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③ 누적 유급휴가는 종업원이 실제로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는 부채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④ 기업의 제안이 아닌 종업원의 요청에 따른 해고에 따라 생기는 종업원급여는 해고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단기종업원급여, 이익분배·상여금, 누적 유급휴가, 해고급여의 인식 시점과 범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단기간 내 지급될 급여이며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인식한다.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는 소유주에 대한 이익처분이 아니라 종업원 근무용역의 대가이므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누적 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권리가 다음 기간으로 이월되는 유급휴가이므로, 종업원의 근무로 그 권리가 쌓이는 시점에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
해고급여는 기업이 고용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거나 기업의 퇴직 제안을 종업원이 수락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단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당기에 근무용역을 제공하면 그 대가로 지급될 예상액을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①은 맞는 설명이다.

② O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는 종업원에게 제공받은 근무용역의 대가이다. 따라서 관련 원가는 자본의 이익분배가 아니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므로 ②는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실제로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는 부채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이다. 누적 유급휴가는 종업원의 근무에 따라 미래 유급휴가 권리가 누적되므로, 사용 전이라도 그 권리가 쌓이는 기간에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 사용 시점까지 인식하지 않는 설명은 비누적 유급휴가에 가까운 설명이다.

④ O
기업의 제안이 아닌 종업원 자신의 요청에 따른 퇴직에서 발생하는 급여는 해고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고급여는 기업이 고용을 종료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퇴직을 종업원이 수락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④는 맞다.

오답 포인트

③의 '사용하기 전에는 인식하지 않는다'가 함정이다. 유급휴가라는 말만 보고 모두 사용 시점에 인식한다고 보면 틀리며, 누적 여부가 인식 시점을 가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종업원급여 문제는 먼저 종업원의 근무로 권리가 이미 쌓였는지와 기업이 현재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본다. 권리가 누적되면 사용 전에도 비용·부채를 인식하고, 기업 제안 없는 자발적 퇴직은 해고급여로 보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누적 유급휴가는 쌓일 때 인식하고, 비누적 유급휴가는 쓸 때 인식하며, 해고급여는 기업이 종료하거나 제안한 퇴직에만 해당한다.

NoteBase

문 4. (주)서울은 20×1년 초에 액면금액 ₩100,000(액면이자율 8%,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지급 조건)의 회사채를 ₩95,000에 취득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말에 동 회사채에 대해서 현금으로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이자수익으로는 ₩9,500을 인식하였다. 동 회사채의 20×1년 말 공정가치는 ₩97,000이었으며, (주)서울은 이 회사채를 20×2년 초에 ₩97,500에 매각하였다. 이 회사채의 20×1년 기말 평가손익과 20×2년 초 처분손익이 두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① 20×1년: 영향 없음, 20×2년: ₩500 증가

② 20×1년: 영향 없음, 20×2년: ₩1,000 증가

③ 20×1년: ₩500 증가, 20×2년: ₩500 증가

④ 20×1년: ₩500 증가, 20×2년: ₩1,000 증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채권의 상각후원가 계산, 기말 공정가치평가손익의 인식 위치,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의 재분류조정을 함께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취득원가 95,000원, 액면금액 100,000원, 현금이자 8,000원, 20×1년 이자수익 9,500원, 20×1년 말 공정가치 97,000원, 20×2년 초 매각가액 97,500원.
구해야 할 값: 20×1년 기말 평가손익과 20×2년 초 처분손익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주의할 조건: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기말 미실현평가손익은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고, 처분 시 누적 기타포괄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

사용할 공식

기말 상각후원가 = 취득원가 + 이자수익 - 현금이자
기말 평가손익 = 공정가치 - 기말 상각후원가
처분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총영향 = 당기 매각차익 + 누적 기타포괄손익 재분류액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이 문항은 채권을 먼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후원가까지 계산한 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이 어디에 반영되는지와 처분 시 재분류조정이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1년 말 상각후원가는 95,000원 + 9,500원 - 8,000원 = 96,500원이다.
2. 20×1년 말 공정가치평가이익은 97,000원 - 96,500원 = 500원이다.
3. 이 500원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이므로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된다. 따라서 20×1년 당기순이익 영향은 없다.
4. 20×2년 초 매각 시점의 추가 매각차익은 97,500원 - 97,000원 = 500원이다.
5. 전기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500원이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 따라서 20×2년 당기순이익 영향은 500원 + 500원 = 1,000원 증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20×1년은 영향 없음이 맞지만, 20×2년을 500원 증가로 본 점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20×2년 500 증가"이다. 올바르게는 전기 누적 기타포괄손익 500원의 재분류와 당기 매각차익 500원이 함께 반영되어 1,000원 증가이다.
② O: 20×1년 기말 평가이익 500원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므로 당기순이익 영향이 없고, 20×2년 초 처분 시에는 누적 기타포괄손익 500원의 재분류와 추가 매각차익 500원이 합쳐져 당기순이익이 1,000원 증가한다.
③ X: 20×1년을 500원 증가로 본 점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20×1년 500 증가"이다. 올바르게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미실현평가이익 500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가므로 20×1년 당기순이익 영향이 없다. 또한 20×2년도 500원이 아니라 1,000원 증가이다.
④ X: 20×2년 1,000원 증가는 맞지만, 20×1년을 500원 증가로 본 점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20×1년 500 증가"이다. 올바르게는 20×1년은 영향 없음이다.

오답 포인트

많이 틀리는 지점은 기말 공정가치평가이익 500원을 바로 당기순이익으로 넣는 실수와, 처분 시에는 매각가액 97,500원과 기말 공정가치 97,000원의 차이 500원만 보는 실수이다. 이 문항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쌓이고 처분 시 재분류된다는 점을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채권형 매도가능금융자산 문항은 먼저 상각후원가를 구하고, 다음에 공정가치와 비교해 평가손익의 크기를 계산한 뒤, 그 손익이 당기손익인지 기타포괄손익인지 인식 위치를 확인한다. 처분 문항이 이어지면 전기 누적 기타포괄손익의 재분류 여부까지 함께 본다.

암기 포인트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보유 중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 처분 시에는 누적 기타포괄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고 기억하면 된다.

NoteBase

문 5.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 원가가 없는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수익으로 계상할 수도 있고 관련 비용에서 차감할 수도 있다.

③ 관련원가와 대응되는 정부보조금은 주주지분에 인식하는 방법과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④ 비화폐성 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비화폐성 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명목금액으로 자산과 보조금을 기록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부보조금의 인식 방법과 표시 방법, 특히 자산관련 보조금을 자본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부보조금은 기업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으로, 원칙적으로 관련 원가와 대응시키면서 손익으로 인식한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관련 비용을 보전하는 보조금이므로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 비용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 취득과 관련된 보조금이므로 이연수익으로 계상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자산 장부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지만, 주주지분에 직접 인식하지는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을 보전하고 향후 관련 원가가 없는 정부보조금은 미래 기간에 대응시킬 비용이 없으므로,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다.

② O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손익계산서에서 별도의 수익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둘 다 관련 비용 보전이라는 성격을 반영한 허용된 표시 방법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주주지분에 인식하는 방법"이다.
관련원가와 대응되는 정부보조금은 주주지분에 직접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이라면 이연수익으로 계상하거나 자산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④ O
비화폐성 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과 보조금을 공정가치로 기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명목금액으로 기록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정부보조금을 "자본거래처럼" 처리한다는 표현으로 수험생을 흔든다. 정부보조금은 출연금처럼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자본항목이 아니라, 관련 원가와 대응시키는 손익 인식 항목이라는 점을 놓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부보조금 선지는 먼저 보조금의 성격이 수익관련인지 자산관련인지 구분하고, 그다음 처리 문구에 "주주지분 직접 인식"이 보이면 틀린 선지로 판단한다. 정부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관련 원가와 대응하여 손익에 반영된다고 정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정부보조금은 자본직입이 아니라 원가대응에 따른 손익인식이다.

NoteBase

문 6. 20×1년 초에 (주)서울은 (주)나라의 보통주식 20%를 ₩1,000,000에 취득하면서 (주)나라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20×1년 초 (주)나라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4,500,000이었으며, 건물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이 일치하였다.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보다 ₩200,000 높게 평가되었으며, 잔존내용연수 10년, 잔존가액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주)나라의 20×1년 순이익은 ₩100,000이다. (주)서울의 20×1년 재무제표상 관계기업투자 주식은 얼마인가?

① ₩1,012,000

② ₩1,016,000

③ ₩1,020,000

④ ₩1,024,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분법 적용 시 취득 시점 공정가치 초과분의 추가 감가상각을 반영하여 관계기업투자 주식의 기말 장부금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취득원가 1,000,000원, 지분율 20%, 피투자회사 당기순이익 10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20×1년 말 관계기업투자 주식 장부금액이다.
주의할 조건: 건물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200,000원 높으므로 지분법이익 계산 때 추가 감가상각을 반영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지분법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지분법이익 - 취득 시 공정가치 초과분 상각액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면 투자주식을 원가로만 두지 않고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변동 중 투자자 지분만큼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취득 시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 중 상각 가능한 자산 부분은 추가 감가상각으로 차감한다.

계산 과정

1. 피투자회사 순이익에 대한 지분법이익은 100,000원 × 20% = 20,000원이다.
2. 건물 공정가치 초과분 중 투자자 지분 해당액은 200,000원 × 20% = 40,000원이다.
3. 이 금액은 잔존내용연수 10년에 걸쳐 상각하므로 연간 추가 감가상각은 40,000원 ÷ 10 = 4,000원이다.
4. 따라서 반영할 순증가액은 20,000원 - 4,000원 = 16,000원이다.
5. 기말 관계기업투자 주식은 1,000,000원 + 16,000원 = 1,016,0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1번 X: '관계기업투자 주식이 1,012,000원이다'는 금액이 틀렸다. 건물 공정가치 초과분에 대한 연간 차감액은 4,000원이어야 하므로 순증가액은 16,000원이다. 올바르게는 1,016,000원이다.
2번 O: '1,016,000원'이 맞다. 지분법이익 20,000원에서 건물 공정가치 초과분의 추가 감가상각 4,000원을 차감한 16,000원을 취득원가에 더하면 된다.
3번 X: '관계기업투자 주식이 1,020,000원이다'는 건물 공정가치 초과분 상각을 누락한 금액이다. 순이익 지분 20,000원만 더하면 안 되고 추가 감가상각 4,000원을 차감해야 한다. 올바르게는 1,016,000원이다.
4번 X: '관계기업투자 주식이 1,024,000원이다'는 추가 감가상각 4,000원을 차감하지 않고 오히려 가산한 금액이다. 공정가치 초과분은 지분법 장부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반영한다. 올바르게는 1,016,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많이 틀리는 지점은 피투자회사 순이익 지분 20,000원만 보고 끝내는 경우와, 취득 시 건물 공정가치 초과분 200,000원을 투자자 지분으로 환산한 40,000원의 연간 상각액 4,000원을 반대로 더하는 경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분법 문제는 먼저 순이익 지분을 구하고, 다음으로 취득 시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 중 상각 가능한 자산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그 상각액을 지분법이익에서 차감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지분법 장부금액은 순이익 지분을 더하고 취득 시 공정가치 초과분의 상각액은 뺀다.

NoteBase

문 7. 리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② 운용리스에서 리스료수익은 리스자산의 사용효익이 감소되는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한다.

③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된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금액이 감소되면 금융리스채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감소금액을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④ 판매후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판매자의 판매에 따른 이익을 즉시 인식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분류 기준, 운용리스 수익 인식, 무보증잔존가치 재검토, 판매후리스거래의 이익 인식 시점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금융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는 리스이다.
운용리스는 금융리스가 아닌 리스이며, 리스제공자의 리스로수익은 사용효익의 감소 패턴을 더 잘 나타내는 기준이 없으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한다.
판매후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면 판매이익은 즉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리스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금융리스의 핵심 판단 기준은 법적 소유권 이전 여부가 아니라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 이전 여부이다. 선지는 금융리스의 정의를 정확히 설명한다.
2번: O. 운용리스에서 리스제공자의 리스로수익은 원칙적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한다. 다만 자산 효익의 감소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선지 설명이 맞다.
3번: O.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된 무보증잔존가치는 정기적으로 재검토한다. 그 금액이 감소하면 이미 인식해 온 금융리스채권의 장부금액을 줄이고, 감소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므로 선지가 맞다.
4번: X. 틀린 표현은 '판매에 따른 이익을 즉시 인식한다'이다. 판매후리스거래가 금융리스이면 판매자는 자산의 위험과 보상을 실질적으로 계속 보유하므로 판매이익을 즉시 인식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판매이익을 이연하고 리스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판매후리스거래는 형식상 매매가 먼저 일어나므로 이익을 바로 인식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에 따라 이익 인식 시점이 달라지며, 금융리스는 위험과 보상을 계속 보유하므로 즉시 인식이 아니라 이연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리스 문제는 먼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부터 구분한다. 그다음 운용리스는 정액기준 수익 인식, 금융리스는 순투자 회수와 잔존가치 재검토, 판매후리스는 금융리스이면 이익 이연이라는 순서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금융리스는 위험·보상 이전, 운용리스 수익은 정액, 판매후 금융리스 이익은 즉시 인식이 아니라 이연이다.

NoteBase

문 8. (주)서울은 소모품을 구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한 후, 결산일에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비용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017년 기초와 기말소모품은 각각 ₩270,000과 ₩360,000이고 당기에 소모품 구매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700,000이다. 당기에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소모품비는 얼마인가?

① ₩70,000

② ₩610,000

③ ₩700,000

④ ₩79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산으로 처리한 소모품의 결산 조정 원리를 이용해 당기 소모품비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기초소모품 270,000원
- 당기 현금구입액 700,000원
- 기말소모품 360,000원

구해야 할 값:
-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소모품비

주의할 조건:
- 구입액 전부가 비용이 아니라 기말에 남은 미사용분은 자산으로 남는다.

사용할 공식

소모품비 = 기초소모품 + 당기구입액 - 기말소모품
기초에 있던 소모품과 당기에 새로 산 소모품 중에서, 기말에 남아 있는 미사용분을 제외한 금액만 당기 비용이 된다.

계산 과정

1. 사용 가능 소모품 총액은 270,000원 + 700,000원 = 970,000원이다.
2. 이 중 기말에 남은 360,000원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자산으로 남는다.
3. 따라서 당기 소모품비는 970,000원 - 360,000원 = 610,0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70,000원은 구입액 700,000원에서 기초와 기말 잔액을 모두 단순 차감한 값이다. 기초소모품 270,000원은 이미 사용 가능한 소모품에 포함되므로 빼는 항목이 아니라 더하는 항목이다. 올바르게는 당기 소모품비는 610,000원이다.
② O: 기초소모품 270,000원과 당기구입액 700,000원을 합한 뒤 기말소모품 360,000원을 차감하면 610,000원이 된다. 사용한 부분만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결산 조정 원리에 맞는 금액이다.
③ X: 700,000원은 당기 현금구입액만 본 값이다. 기초에 이미 보유하던 270,000원도 당기 사용분에 포함될 수 있고, 기말 360,000원은 미사용분이므로 차감해야 한다. 올바르게는 당기 소모품비는 610,000원이다.
④ X: 790,000원은 기말소모품 증가분 90,000원을 오히려 비용에 가산한 형태의 오답이다. 기말 잔액이 많을수록 아직 남아 있는 자산이 많다는 뜻이므로 비용은 줄어든다. 올바르게는 당기 소모품비는 61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구입 시 자산 처리한 소모품은 결산 때 사용한 부분만 비용으로 바꿔야 하는데, ③처럼 구입액 전부를 비용으로 보거나 ④처럼 기말잔액 증가를 비용 증가로 거꾸로 해석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모품·보험료·선급비용처럼 먼저 자산으로 잡는 항목은 항상 기초자산 + 당기증가 - 기말자산 = 당기비용의 흐름으로 판단한다. 먼저 남아 있는 기말자산이 차감항목인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자산 선처리 항목의 비용화는 기초 더하고 기말 뺀다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9. (주)서울은 20×1년 초에 액면금액 ₩10,000의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동 전환사채는 액면이자율 8%, 만기 3년, 매년도 말 이자지급 조건으로 발행되었으며, 만기일 상환시에는 액면금액에 상환할증금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사채발행 당시 시장이자율은 12%였다.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다음과 같을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20×1.1.1.	(차) 현금	₩10,000	(대) 전환사채		₩10,000
	전환권조정	₩1,152		사채상환할증금	₩662
				전환권대가	₩490

① 발행 시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은 ₩9,510이다.

② 전환사채 발행 시의 자본요소는 ₩490이다.

③ 20×1년 말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1,141이다.

④ 전환사채의 보장수익률은 시장수익률인 12%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환사채 발행 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고, 유효이자율과 보장수익률을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액면금액 10,000원, 액면이자율 8%,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지급, 만기상환액 10,662원이다.
구해야 할 값:
발행 시 부채요소 장부금액, 자본요소, 20×1년 이자비용, 보장수익률이다.
주의할 조건:
시장수익률 12%는 부채요소의 현재가치와 유효이자율 계산에 쓰고, 보장수익률은 사채 자체의 계약상 현금흐름으로 별도로 구한다.

사용할 공식

부채요소 현재가치는 미래 현금흐름을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값이다.
부채요소 현재가치=(800)/(1.12)+(800)/(1.12^2)+(11,462)/(1.12^3)
보장수익률은 액면발행가액 10,000원과 사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일치시키는 내부수익률이다.

$$10,000 = \frac{800}{(1+r)} + \frac{800}{(1+r)^2} + \frac{11,462}{(1+r)^3}$$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전환권이 분리된 뒤에도 부채요소 평가는 시장수익률을 쓰고, 사채의 보장수익률은 계약상 지급조건 자체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발행 시 부채요소 현재가치는 $9,510.47$원이므로 반올림하면 9,510원이다.
2. 자본요소는 10,000원-9,510원=490원이다.
3. 20×1년 이자비용은 $9,510 \times 12\% = 1,141.2$원이므로 1,141원이다.
4. 보장수익률 r을 위 식에 대입해 풀면 $r = 10\%$이다. 662원의 상환할증금이 액면이자율 8%를 보장수익률 10%로 끌어올린다.

선지별 해설

① O
발행 시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은 사채 10,000원과 사채상환할증금 662원에서 전환권조정 1,152원을 차감한 9,510원이다. 현재가치 계산 결과와도 일치한다.

② O
전환사채 발행 시의 자본요소는 전체 발행대가 10,000원에서 부채요소 9,510원을 뺀 490원이다. 분개의 전환권대가 490원과 일치한다.

③ O
20×1년 말 이자비용은 발행 시 장부금액 9,510원에 시장수익률 12%를 적용한 1,141원이다. 액면이자 800원만 비용으로 보면 유효이자율법을 놓친 것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보장수익률은 시장수익률인 12%"라는 부분이다. 보장수익률은 액면발행가액 10,000원과 매년 이자 800원, 만기상환액 11,462원을 일치시키는 계약상 수익률이므로 10%이다. 12%는 전환권 분리 후 부채요소를 평가하고 이자비용을 계산하는 시장수익률이다.

오답 포인트

시장수익률과 보장수익률을 같은 개념으로 섞으면 ④를 옳다고 보기 쉽다. 이 문항은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시장수익률 12%로 부채요소를 측정하지만, 사채 자체의 보장수익률은 상환할증금까지 포함한 계약상 현금흐름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구분하는 함정을 둔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환사채 문제는 먼저 부채요소 현재가치를 시장수익률로 계산하고, 그다음 자본요소를 차감으로 구한 뒤, 이자비용과 보장수익률이 각각 어떤 금리를 쓰는지 분리해서 판단한다. 부채평가 금리와 계약상 수익률을 같은 숫자로 두지 않으면 오답을 피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전환사채는 부채요소는 시장수익률로, 보장수익률은 계약현금흐름의 내부수익률로 본다. 이 문항에서는 시장수익률 12%, 보장수익률 10%이다.

NoteBase

문 10. (주)서울은 2017년 1월 1일에 취득한 건물(취득원가 ₩1,00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20년)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 동 건물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와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2017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감가상각비와 평가손익 포함)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단, 2017년 말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930,000이며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

① 원가모형 적용 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0,000 더 많다.

② 원가모형 적용 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30,000 더 많다.

③ 공정가치모형 적용 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10,000 더 많다.

④ 공정가치모형 적용 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30,000 더 많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투자부동산의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이 2017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차이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취득원가 1,000,000원, 잔존가치 0원, 내용연수 20년, 정액법, 2017년 말 공정가치 93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두 모형 적용 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의 차이이다.
주의할 조건: 원가모형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공정가치모형은 감가상각하지 않으며 공정가치 변동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사용할 공식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공정가치변동손익 = 기말 공정가치 - 기초 장부금액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원가모형은 감가상각비가 손익에 반영되고, 공정가치모형은 평가손익이 손익에 반영되므로 각 모형의 당기손익 감소액을 직접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원가모형의 2017년 감가상각비는 (1,000,000원 - 0원) / 20년 = 50,000원이다.
2.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고, 2017년 말 평가손익은 930,000원 - 1,000,000원 = -70,000원이다.
3. 따라서 원가모형의 손익 감소액은 50,000원, 공정가치모형의 손익 감소액은 70,000원이다.
4. 원가모형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공정가치모형보다 20,000원 더 많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원가모형에서는 감가상각비 50,000원이 비용으로 반영된다.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감가상각은 없지만 평가손실 70,000원이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따라서 원가모형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0,000원 더 많다.

② X
틀린 표현은 "30,000원 더 많다"이다. 올바르게는 "20,000원 더 많다"이다. 70,000원과 50,000원의 차이는 20,000원이므로 단순 차감에서 계산오류가 난 선지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공정가치모형 적용 시"와 "10,000원 더 많다"이다. 올바르게는 "원가모형 적용 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0,000원 더 많다"이다. 공정가치모형은 평가손실 70,000원을 반영하므로 오히려 순이익이 더 적다.

④ X
틀린 표현은 "공정가치모형 적용 시"와 "30,000원 더 많다"이다. 올바르게는 "원가모형 적용 시 20,000원 더 많다"이다. 방향도 반대이고 금액도 10,000원 과대계상되었다.

오답 포인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과 공정가치 하락분 70,000원을 바로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는 점을 동시에 놓치기 쉽다. 특히 원가모형의 기말 장부금액 950,000원과 공정가치 930,000원의 차이 20,000원만 보고 근거 없이 방향을 바꾸면 ③, ④ 같은 오답에 걸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모형 비교 문제는 각 모형에서 당기손익에 들어가는 항목만 따로 적어 비교하면 된다. 원가모형은 감가상각비, 공정가치모형은 평가손익을 적고, 두 금액의 차이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의 우열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투자부동산은 원가모형이면 감가상각, 공정가치모형이면 감가상각 없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NoteBase

문 11. ㈜서울이 2017년 수주한 장기건설공사는 3년 간에 걸쳐서 수행될 예정이며, 당해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계약금액은 ₩2,500,000이다. 진행기준 적용 시 진척도는 총 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을 사용한다. 관련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2017년도의 미성공사 계정과 진행청구액 계정은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되는가?

	2017년	2018년
당기발생원가	₩500,000	₩1,300,000
완성시까지 추가소요원가	₩1,500,000	₩1,200,000
대금청구액	₩550,000	₩2,490,000
대금회수액	₩450,000	₩2,000,000

① 미청구공사 ₩75,000

② 미청구공사 ₩125,000

③ 초과청구공사 ₩75,000

④ 초과청구공사 ₩125,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진행기준에서 진행률로 누적공사수익을 계산한 뒤, 진행청구액과 상계하여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조건 정리

계약금액은 2,500,000원이다.
2017년 당기발생원가는 500,000원이고 완성시까지 추가소요원가는 1,500,000원이다.
2017년 말 대금청구액은 550,000원이며 대금회수액은 이 문제의 표시액 계산에 직접 쓰이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진행률은 누적발생원가/총추정원가로 계산한다.
누적공사수익은 계약금액 × 진행률이다.
재무상태표 표시액은 누적공사수익과 진행청구액을 비교해 판단하며, 누적공사수익이 더 크면 미청구공사, 진행청구액이 더 크면 초과청구공사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총추정원가는 500,000원 + 1,500,000원 = 2,000,000원이다.
2. 2017년 말 진행률은 500, 000/2, 000, 000 = 25%이다.
3. 누적공사수익은 2,500,000원 × 25% = 625,000원이다.
4. 이 625,000원은 누적발생원가 500,000원과 누적인식이익 125,000원의 합이다.
5. 누적공사수익 625,000원에서 진행청구액 550,000원을 차감하면 75,000원이다.
6. 누적공사수익이 진행청구액보다 크므로 75,000원은 자산인 미청구공사로 표시된다.

선지 판단

1번(O): 누적공사수익 625,000원과 진행청구액 550,000원을 상계하면 75,000원 자산이 남는다. 따라서 미청구공사 75,000원이 맞다.
2번(X): 125,000원은 누적인식이익 금액일 뿐 재무상태표 표시액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미청구공사 125,000원"이고, 올바르게는 "미청구공사 75,000원"이다.
3번(X): 75,000원이라는 차액 크기는 맞지만 방향이 틀리다. 누적공사수익 625,000원이 진행청구액 550,000원보다 크므로 초과청구공사가 아니라 미청구공사이다.
4번(X): 125,000원은 이익 금액을 그대로 가져온 오답이고 자산·부채 방향도 반대이다. 틀린 표현은 "초과청구공사 125,000원"이고, 올바르게는 "미청구공사 75,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미성공사 계정의 원가 500,000원이나 누적인식이익 125,000원을 곧바로 재무상태표 표시액으로 착각하면 틀린다. 이 문제의 함정은 표시액이 원가나 이익 자체가 아니라 누적공사수익과 진행청구액의 상계 결과라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장기건설계약은 먼저 총추정원가로 진행률을 구하고, 그 진행률을 계약금액에 곱해 누적공사수익을 계산한다. 그다음 누적공사수익과 진행청구액을 비교해 더 큰 쪽을 기준으로 자산인지 부채인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진행기준 표시액은 "누적공사수익 - 진행청구액"이며, 양수이면 미청구공사이고 음수이면 초과청구공사이다.

NoteBase

문 1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운용표에는 프로그램(정책사업)별로 원가가 집계·표시된다.

② 재정상태표상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배열법에 따라 표시된다.

③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은 재정운용표에 비교환수익으로 보고한다.

④ 재정상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무형자산 항목으로 표시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정운영표와 재정상태표의 표시 원칙, 비교환수익의 개념, 사용수익권의 표시 방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사용수익권을 무형자산으로 보지 않고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등으로 생기는 수익이다.
사용수익권은 국가회계실체 이외의 자가 국가의 자산을 일정 기간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서, 자산 자체와 별도로 무형자산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된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재정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별 원가와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며, 직접 반대급부가 없는 법정 수납은 비교환수익으로 본다.
사용수익권은 무형자산이 아니라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차감항목이라는 점이 핵심 구분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17

선지별 해설

① O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별로 원가를 집계하여 표시하는 구조를 가진다. 정책사업별 원가정보를 보여 주는 것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O
재정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따라서 유동성배열법에 따라 표시된다는 설명은 옳다.

③ O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은 비교환수익에 해당한다. 조세나 부담금처럼 국가가 대가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수익을 말하므로 옳다.

④ X
사용수익권은 무형자산 항목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일반유형자산이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틀린 표현: "무형자산 항목으로 표시된다"
올바른 표현: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된다"

오답 포인트

④는 '권리'라는 단어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국가회계기준에서는 사용수익권을 독립된 무형자산으로 보지 않고 관련 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서 차감 표시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가회계기준 문제에서 선지가 재무제표의 표시 위치를 묻는다면 먼저 해당 항목이 독립 자산인지, 기존 자산의 차감항목인지부터 구분하면 된다. 특히 사용수익권처럼 특정 자산과 직접 연결되는 권리는 무형자산으로 단정하지 않고 표시 방법을 따져 본다.

암기 포인트

사용수익권은 무형자산이 아니라 관련 자산의 차감항목이다.

NoteBase

문 13. (주)서울의 2016년 기말상품재고원가는 ₩100,000, 순실현가능가치는 ₩95,000이다. 2017년 당기매입액은 ₩850,000이고, 기말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서울은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할 때, 2017년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단, 2016년 말 재고자산은 2017년도에 모두 판매되었다.)

장부수량	실지재고수량	취득원가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100개	95개	₩1,100	₩1,000

① ₩844,500

② ₩849,500

③ ₩850,000

④ ₩855,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전기 말 평가손실이 반영된 기초재고를 출발점으로 잡고, 당기 말에는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을 구분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2016년 말 재고 장부금액은 순실현가능가치 기준 95,000원이다.
주어진 값: 2017년 당기매입액은 850,000원이다.
주어진 값: 2017년 말 장부수량 100개, 실제재고수량 95개, 취득원가 1,100원,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1,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제외한 2017년 매출원가이다.
주의할 조건: 2016년 말 재고는 2017년에 모두 판매되므로 기초재고는 원가 100,000원이 아니라 평가 후 금액 95,000원으로 본다.

사용할 공식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
감모손실 = (장부수량 - 실제수량) × 단위원가
이 공식을 쓰는 이유: 기말재고를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하면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이 함께 반영되므로, 문제 조건에 맞추려면 감모손실만 다시 분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17년 기초재고는 2016년 말 평가 후 금액인 95,000원이다.
2. 2017년 말 실제재고의 원가는 $95 \times 1,100 = 104,500$원이고, 순실현가능가치는 $95 \times 1,000 = 95,000$원이므로 평가손실은 9,500원이다.
3. 기말재고를 평가 후 금액 95,000원으로 보면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을 모두 포함한 매출원가는 $95,000 + 850,000 - 95,000 = 850,000$원이다.
4. 감모손실은 $(100 - 95) \times 1,100 = 5,500$원이다.
5. 문제는 감모손실을 매출원가에서 제외하므로 $850,000 - 5,500 = 844,5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계산 결과가 844,500원이므로 옳다. 기초재고 95,000원과 당기매입 850,000원에서 기말재고 95,000원을 차감하면 850,000원이고, 여기서 감모손실 5,500원을 별도 분리하면 844,500원이 된다.
② X: 849,500원은 기초재고를 평가 후 금액 95,000원이 아니라 원가 100,000원으로 잡고 감모손실 5,500원만 별도 차감할 때 나오는 값이다. 틀린 표현은 "849,500원"이고, 올바르게는 "844,500원"이다.
③ X: 850,000원은 감모손실을 매출원가에 포함시켜 버린 값이다. 문제는 감모손실을 제외한 금액을 묻고 있으므로 틀린 표현은 "850,000원"이고, 올바르게는 "844,500원"이다.
④ X: 855,000원은 기초재고를 100,000원으로 보고 감모손실도 별도 분리하지 않은 값이다. 전기 말 평가손실 반영과 감모손실 분리를 모두 놓친 계산이므로 틀린 표현은 "855,000원"이고, 올바르게는 "844,500원"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전기 말 재고를 원가 100,000원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과, 당기 말 순실현가능가치 평가액 95,000원 속에 감모손실이 이미 섞여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것이다. 이 문항에서는 ③처럼 감모손실을 매출원가에 포함시키거나, ④처럼 전기 평가손실까지 무시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고평가 계산형은 먼저 기초재고가 전기 말 평가 후 금액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당기 말 손실을 감모손실과 평가손실로 나누어 본다. 문제에서 감모손실을 별도 처리한다고 하면 총매출원가에서 감모손실만 분리해 낸다.

암기 포인트

기초재고는 전기 말 평가 후 금액으로 시작하고, 감모손실 별도 처리 문제는 총매출원가에서 감모손실만 분리하면 된다.

NoteBase

문 14. (주)서울의 2016년 및 2017년의 법인세 회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율은 2016년의 30%에서 2017년의 20%로 인하되었다. 이러한 법인세율의 인하는 2016년 11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른 것이며, 2017년 이후에는 20%의 법인세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래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주)서울이 2017년의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할 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단, 2016년은 (주)서울의 제1기 사업연도이다.)

	2016년	2017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000,000	₩6,000,000
세무조정 금액 : • 영구적 차이	₩500,000	₩100,000
• 일시적 차이	₩(700,000)	₩900,000
법인세과세소득	₩4,800,000	₩7,000,000

① ₩1,220,000

② ₩1,260,000

③ ₩1,360,000

④ ₩1,65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세율 인하가 반영된 이연법인세를 포함하여 2017년 법인세비용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2017년 법인세과세소득은 7,000,000원이다.

2016년 일시적 차이 세무조정은 700,000원, 2017년 일시적 차이 세무조정은 900,000원이다.

2016년 11월에 2017년 이후 적용세율이 20%로 확정되었다.

구해야 할 값:

2017년 법인세비용이다.

주의할 조건:

이연법인세는 일시적 차이의 기말 누적잔액을 미래 적용세율 20%로 측정한다.

미래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당기법인세 = 법인세과세소득 × 세율
이연법인세 = 기말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기초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법인세비용 = 당기법인세 + 이연법인세비용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가 묻는 값은 납부세액이 아니라 법인세비용이므로, 과세소득으로 계산한 당기법인세에 기초·기말 일시적 차이에서 생기는 이연법인세 변동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

계산 과정

1. 2016년은 제1기이므로 2016년 말 일시적 차이 누적잔액은 700,000원인 과세대상 일시적 차이이다. 따라서 2016년 말 이연법인세부채는 700,000원 × 20% = 140,000원이다.
2. 2017년 당기법인세는 7,000,000원 × 20% = 1,400,000원이다.
3. 2017년 말 누적 일시적 차이는 $-700,000 + 900,000 = 200,000$원이다. 이는 미래 차감할 일시적 차이이므로 2017년 말 이연법인세자산은 200,000원 × 20% = 40,000원이다.
4. 따라서 2017년에는 기초 이연법인세부채 140,000원이 소멸하고, 기말 이연법인세자산 40,000원이 새로 인식된다. 이연법인세효과는 총 180,000원의 법인세비용 감소효과이다.
5. 2017년 법인세비용은 1,400,000원 - 180,000원 = 1,220,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1,220,000원은 2017년 당기법인세 1,400,000원에서 이연법인세수익 18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맞다.

② X
1,260,000원은 기초 이연법인세부채 140,000원의 소멸만 반영하고, 2017년 말 미래 차감할 일시적 차이 200,000원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40,000원 인식을 빠뜨린 값이다. 올바르게는 1,220,000원이다.

③ X
1,360,000원은 2017년 말 이연법인세자산 40,000원만 반영하고, 2016년 말에 잡혀 있던 이연법인세부채 140,000원의 환입을 놓친 값이다. 올바르게는 1,220,000원이다.

④ X
1,650,000원은 이연법인세 효과를 비용 감소가 아니라 비용 증가로 거꾸로 처리하거나, 세율 인하 전후 측정을 혼동할 때 나올 수 있는 값이다. 이 문항의 이연법인세 효과는 180,000원 비용 감소이므로 올바르게는 1,220,000원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2017년 세무조정 900,000원만 따로 보고 끝내는 데 있다. 법인세비용은 당해 연도 과세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초에 존재하던 이연법인세부채가 어떻게 뒤집히는지와 기말에 새로 생긴 이연법인세자산을 함께 봐야 한다. 또한 이연법인세는 과거세율 30%가 아니라 역전 시점에 적용될 20%로 측정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인세비용 계산 문제는 먼저 과세소득으로 당기법인세를 구하고, 다음으로 일시적 차이의 기초·기말 누적잔액을 비교해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부채의 변동액을 계산한 뒤, 마지막에 그 변동이 비용 증가인지 감소인지 부호를 점검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에 기초·기말 누적 일시적 차이의 이연법인세 변동을 더해 구하며, 이연법인세는 미래 적용세율로 측정한다.

NoteBase

문 15. ㈜서울은 2016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1,000,000에 취득하였다. 내용연수는 4년, 잔존가치는 ₩100,000,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 기계장치에 대한 회수가능액이 2016년 기말, 2017년 기말, 2018년 기말에 각각 ₩490,000, ₩560,000, ₩325,000이라고 할 때, 2017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될 기계장치의 손상차손누계액과 포괄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단, ㈜서울은 기계장치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① 손상차손누계액: ₩95,000, 감가상각비: ₩90,000

② 손상차손누계액: ₩95,000, 감가상각비: ₩130,000

③ 손상차손누계액: ₩105,000, 감가상각비: ₩90,000

④ 손상차손누계액: ₩105,000, 감가상각비: ₩13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손상차손 인식 후 감가상각비를 다시 계산하고, 이후 손상환입 한도를 반영해 2017년 말 손상차손누계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취득원가: 1,000,000원
- 잔존가치: 100,000원
- 최초 연간 감가상각비: (1,000,000-100,000)/4=225,000원
- 2016년 말 회수가능액: 490,000원
- 2017년 말 회수가능액: 560,000원
- 구해야 할 값: 2017년 말 손상차손누계액과 2017년 감가상각비
- 주의할 조건: 손상 후 감가상각은 수정된 장부금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손상환입은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할 공식

손상차손 =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감가상각비 = (손상 인식 후 장부금액 - 잔존가치)/잔여내용연수
손상환입 한도 =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

이 공식을 쓰는 이유:
2016년 말에는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해 손상을 먼저 인식해야 하고, 2017년 감가상각은 손상 후 장부금액 490,000원을 남은 내용연수 3년에 배분해야 한다. 또한 2017년 말 회수가능액이 증가해도 환입액은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까지만 가능하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16년 말 손상 전 장부금액은 1,000,000-225,000=775,000원이다.
2. 2016년 말 손상차손은 775,000-490,000=285,000원이므로 손상 인식 후 장부금액은 490,000원이다.
3. 2017년 감가상각비는 (490,000-100,000)/3=130,000원이다. 따라서 2017년 말 환입 전 장부금액은 490,000-130,000=360,000원이다.
4. 손상이 없었을 경우 2017년 말 장부금액은 1,000,000-225,000×2=550,000원이다.
5. 2017년 말 회수가능액은 560,000원이지만 환입 한도는 550,000원이므로 환입액은 550,000-360,000=190,000원이다.
6. 따라서 2017년 말 손상차손누계액은 최초 손상차손 285,000원에서 환입 190,000원을 차감한 95,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감가상각비 90,000원이 틀렸다. 손상 인식 후 2017년 감가상각비는 남은 3년을 기준으로 130,000원이며, 손상차손누계액 95,000원만 맞다. 틀린 표현은 '감가상각비 90,000원'이고, 올바르게는 '감가상각비 130,000원'이다.

② O: 손상차손누계액 95,000원과 감가상각비 130,000원이 모두 맞다. 계산 결과와 일치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③ X: 손상차손누계액 105,000원과 감가상각비 90,000원이 모두 틀렸다. 환입 한도를 반영한 손상차손누계액은 95,000원이고, 손상 후 감가상각비는 130,000원이다. 틀린 표현은 '손상차손누계액 105,000원, 감가상각비 90,000원'이고, 올바르게는 '손상차손누계액 95,000원, 감가상각비 130,000원'이다.

④ X: 감가상각비 130,000원은 맞지만 손상차손누계액 105,000원이 틀렸다. 2017년 말 손상차손누계액은 환입 후 95,000원이다. 틀린 표현은 '손상차손누계액 105,000원'이고, 올바르게는 '손상차손누계액 95,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손상차손누계액을 2016년 손상차손 285,000원에서 단순히 감가상각만 반영해 계산하거나, 2017년 말 회수가능액 560,000원까지 전액 환입할 수 있다고 보면 오답이 된다. 감가상각도 취득원가 기준이 아니라 손상 후 장부금액 490,000원을 남은 3년에 배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형자산 손상 문제는 손상 전 장부금액 계산, 회수가능액과 비교한 손상 인식, 손상 후 장부금액 기준 감가상각 재계산, 다음 연도 환입 한도 점검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손상 후 감가상각은 수정 장부금액 기준이고, 환입 상한은 손상이 없었을 장부금액이다.

NoteBase

문 16. (주)서울은 11월 말에 다음과 같은 은행계정조정표를 작성하였다. 12월 말 현재 수정 후 회사 측 장부잔액은?

은행 측 잔액	₩6,000
은행 측 미기입예금	₩1,000
기발행미인출수표	₩(2,400)
회사 측 장부잔액	₩4,600

12월 한 달 동안 은행 측 자료에 따르면 다음 정보가 이용 가능하다.

입금액	₩8,520
출금액	₩12,520

11월 말 은행계정 조정항목은 12월 동안 은행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 12월 말 현재 기발행미인출수표의 합계는 ₩360이고 12월 말 현재 은행 측 미기입예금은 없다.

① ₩640

② ₩1,640

③ ₩2,000

④ ₩3,36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은행계정조정표의 원리를 이용해 12월 말 수정 후 회사 측 장부잔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11월 말 은행 측 잔액 6,000원
- 12월 중 입금액 8,520원
- 12월 중 출금액 12,520원
- 12월 말 기발행미인출수표 360원
- 12월 말 은행 측 미기입예금 0원

구해야 할 값:
- 12월 말 수정 후 회사 측 장부잔액

주의할 조건:
- 11월 말 조정항목은 12월 중 완전히 해결되었으므로 12월 말 조정에는 끌고 오지 않는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은행계정조정의 핵심은 12월 말 은행 측 잔액을 먼저 구한 뒤, 12월 말 현재 남아 있는 조정항목만 반영하는 것이다.
12월 말 은행측 잔액 = 6,000 + 8,520 - 12,520 = 2,000
수정 후 회사측 장부잔액 = 12월 말 은행측 잔액 + 미기입예금 - 기발행미인출수표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11월 말 조정항목이 이미 12월 중 해결되었으므로, 12월 말에는 새로 남아 있는 조정항목만 은행 잔액에 반영하면 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12월 말 은행 측 잔액을 구하면 6,000 + 8,520 - 12,520 = 2,000원이다.
2. 12월 말 조정항목은 미기입예금 0원, 기발행미인출수표 360원이다.
3. 따라서 수정 후 회사 측 장부잔액은 2,000 + 0 - 360 = 1,64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640원은 11월 말 미기입예금 1,000원과 12월 말 기발행미인출수표 360원의 차이만 본 값이다. 12월 한 달간의 입금 8,520원과 출금 12,520원을 반영해 구한 12월 말 은행 측 잔액 2,000원을 빠뜨렸다. 틀린 금액 → 올바르게는 1,640원이다.

② O
12월 말 은행 측 잔액은 2,000원이고, 12월 말 미기입예금은 없으며 기발행미인출수표 360원만 남아 있다. 따라서 수정 후 회사 측 장부잔액은 2,000 - 360 = 1,640원이다.

③ X
2,000원은 12월 말 은행 측 잔액일 뿐 조정 후 잔액이 아니다. 기발행미인출수표 360원을 차감해야 하므로 최종 장부잔액으로는 부족하다. 틀린 금액 → 올바르게는 1,640원이다.

④ X
3,360원은 11월 말 미기입예금 1,000원을 12월 말에도 다시 더하고, 12월 말 기발행미인출수표 360원을 차감하지 않은 혼동에서 나오는 값이다. 11월 말 조정항목은 12월 중 완전히 해결되었으므로 12월 말 계산에 다시 넣으면 안 된다. 틀린 금액 → 올바르게는 1,640원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11월 말 조정항목과 12월 말 조정항목을 섞는 데 있다. 문제에 11월 말 조정항목이 12월 중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2월 말에는 새로 남은 기발행미인출수표 360원만 반영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은행계정조정 문제는 먼저 당월 말 은행 측 잔액을 계산하고, 그다음 당월 말 현재 남아 있는 조정항목만 더하거나 뺀다. 전월 말 조정항목의 해결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중복 반영을 막을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수정 후 잔액은 당월 말 은행잔액에 당월 말 미해결 조정항목만 반영한 값이다.

NoteBase

문 17. 유동비율의 증가 혹은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득 이후 3년 간 감가상각한 기계장치를 장부가액으로 처분하면 유동비율에 변화가 없다.

② 유동비율이 150%인 상황에서 미지급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유동비율이 감소한다.

③ 유동비율이 90%인 상황에서 매입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하면 유동비율이 증가한다.

④ 보통주를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현금을 조달하면 유동비율이 증가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거래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같은 금액으로 함께 줄어들 때 유동비율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례 정리

1번과 4번은 현금 유입으로 유동자산이 늘고 유동부채는 변하지 않는 거래이다.
2번과 3번은 현금 지급으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함께 줄어드는 거래이다.
이때 유동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같은 금액 차감 시 유동비율은 증가하고, 100% 미만이면 감소한다.

핵심 개념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유동자산만 증가하면 유동비율은 증가한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같은 금액으로 함께 감소하면 기준점은 100%이며, 100% 초과에서는 증가하고 100% 미만에서는 감소한다.

적용 기준

각 거래가 유동자산만 바꾸는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함께 바꾸는지를 먼저 본다.
함께 바뀌는 거래라면 기존 유동비율이 100%를 넘는지 못 미치는지를 확인해 방향을 판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기계장치를 장부가액으로 처분하면 고정자산이 줄고 현금 등 유동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증가한다. 유동부채는 변하지 않으므로 유동비율은 변함이 없지 않고 증가한다. 틀린 표현은 "유동비율에 변화가 없다"이고, 올바르게는 "유동비율이 증가한다"이다.
2번: X. 유동비율이 150%이면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큰 상태이다. 이때 미지급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함께 감소하므로 유동비율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한다. 틀린 표현은 "유동비율이 감소한다"이고, 올바르게는 "유동비율이 증가한다"이다.
3번: X. 유동비율이 90%이면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작은 상태이다. 이때 매입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하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함께 감소하므로 유동비율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 틀린 표현은 "유동비율이 증가한다"이고, 올바르게는 "유동비율이 감소한다"이다.
4번: O. 보통주를 발행하여 현금을 조달하면 유동자산인 현금이 증가하고 상대계정은 자본이므로 유동부채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동비율은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같은 금액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서 함께 빠지면 무조건 유동비율이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2번과 3번을 동시에 틀리기 쉽다. 이 문제의 함정은 절대금액의 증감이 아니라 기존 비율이 100%를 넘는지 못 미치는지에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동비율 문제는 먼저 거래가 유동자산만 변하게 하는지, 유동부채만 변하게 하는지, 둘을 같은 금액으로 함께 변하게 하는지를 구분한다. 둘이 함께 변하면 기존 유동비율을 100%와 비교해 방향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유동자산만 늘면 유동비율은 증가한다. 같은 금액 동시 감소는 100% 초과이면 증가, 100% 미만이면 감소이다.

NoteBase

문 18. (주)서울은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작업별로 예정배부를 하고 있는데, 20×1년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직접노무시간당 ₩100이다. 20×1년 한 해 동안 제조간접원가는 ₩52,500이 실제 발생하였으며 ₩2,500이 과대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예정 직접노무시간을 50시간 초과하였다. 20×1년도 제조간접비 예산은 얼마인가?

① ₩50,000

② ₩55,000

③ ₩60,000

④ ₩65,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상개별원가계산에서 과대배부액과 예정배부율을 이용해 예산 직접노무시간과 예산 제조간접비를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예정배부율: 직접노무시간당 ₩100
- 실제 제조간접원가: ₩52,500
- 과대배부액: ₩2,500
-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예정 직접노무시간보다 50시간 많다.

구해야 할 값:
- 20×1년도 제조간접비 예산

주의할 조건:
- 과대배부는 배부액이 실제발생액보다 크다는 뜻이다.

사용할 공식

적용 제조간접원가 = 실제 제조간접원가 + 과대배부액
예정 직접노무시간 = 실제 직접노무시간 - 50시간
제조간접비 예산 = 예정배부율 × 예정 직접노무시간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정상개별원가계산에서 예정배부율은 예산 제조간접비를 예산 직접노무시간으로 나눈 값이므로, 먼저 적용 제조간접원가와 실제 직접노무시간을 역산한 뒤 예산 제조간접비를 구할 수 있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과대배부액 2,500원은 배부액이 실제발생액보다 더 크다는 뜻이므로 적용 제조간접원가는 52,500원 + 2,500원 = 55,000원이다.
2. 예정배부율이 시간당 100원이므로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55,000원 ÷ 100원 = 550시간이다.
3. 실제 직접노무시간이 예정 직접노무시간보다 50시간 많으므로 예정 직접노무시간은 550시간 - 50시간 = 500시간이다.
4. 제조간접비 예산은 100원 × 500시간 = 50,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계산 결과 제조간접비 예산은 50,000원이다. 예정배부율 100원에 예정 직접노무시간 500시간을 곱한 금액과 일치한다.
② X: 55,000원은 예산 제조간접비가 아니라 실제 직접노무시간 550시간에 예정배부율을 곱한 적용 제조간접원가이다. 틀린 표현은 금액 55,000원이다. 올바르게는 제조간접비 예산은 50,000원이다.
③ X: 60,000원은 실제시간이 예정시간보다 50시간 많다는 조건을 반대로 읽어 예정 직접노무시간을 600시간으로 잡을 때 나오는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금액 60,000원이다. 올바르게는 예정 직접노무시간은 500시간이므로 제조간접비 예산은 50,000원이다.
④ X: 65,000원은 실제발생액, 과대배부액, 시간차이를 뒤섞어 계산한 오답이다. 예산 제조간접비는 실제발생 제조간접원가에 임의로 가감해서 구하는 값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금액 65,000원이다. 올바르게는 제조간접비 예산은 5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과대배부의 방향과 실제시간·예정시간의 대소관계를 동시에 뒤집기 쉽다는 점이다. 과대배부는 적용액 > 실제발생액이고, 실제 직접노무시간이 예정보다 50시간 많으면 예정시간은 실제시간에서 50시간을 빼서 구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상개별원가계산 계산형은 과대배부인지 과소배부인지부터 부호를 정하고, 적용 제조간접원가로 실제 활동수준을 역산한 뒤, 실제와 예정 활동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여 마지막에 예정배부율을 곱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과대배부이면 적용액 = 실제발생액 + 과대배부액이고, 예산 제조간접비는 예정배부율 × 예정조업도이다.

NoteBase

문 19.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③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 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는 자원을 말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의 정의와 자산의 인식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자산의 정의에서는 '소유 또는 통제'와 '실질적 소유 포함'을, 인식기준에서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을 구별하는 데 있다.

용어 풀이

자산의 정의는 무엇을 자산이라고 부르는지에 관한 기준이다.
자산의 인식기준은 그렇게 정의된 자산을 재무제표에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이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이다.
또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그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한다.
인식 단계에서는 여기에 더해 그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17

선지별 해설

① O
자산의 인식기준을 그대로 설명한 선지이다. 공공서비스 제공 가능성 또는 경제적 효익 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 O
유산자산은 역사적·자연적·문화적·교육적·예술적 가치 때문에 정부가 영구히 보존해야 하는 자산을 뜻하고,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종류와 현황을 공시 대상으로 둔다.

③ O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협의를 거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종류·취득시기·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한다.

④ X
자산의 정의를 틀리게 바꾼 선지이다. 자산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하고,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자원만이 아니라 통제하고 있는 자원도 포함한다.
틀린 표현: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 있는 자원'
올바른 표현: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
추가로 경제적 효익은 직접·간접적으로 창출하거나 그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자산의 정의와 자산의 인식기준을 한 문장으로 섞어 기억하면 4번 같은 변형을 놓치기 쉽다. 특히 '포함한다'를 '제외한다'로 바꾸거나 '통제'를 삭제하는 방식이 대표적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규정형 회계문항은 먼저 정의 조문인지 인식 조문인지부터 나누어 본다. 그다음 '소유 또는 통제', '포함 또는 제외', '인식 가능성 매우 높음', '신뢰성 있는 측정' 같은 대비어를 확인하면 정오를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자산 정의는 '소유 또는 통제, 실질적 소유 포함'이고, 자산 인식은 '가능성 매우 높음 + 신뢰성 있는 측정'이다.

NoteBase

문 20. (주)서울은 2016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 발행 당시의 유효이자율이 10%, 만기 3년의 사채를 ₩1,049,732에 발행하였다. 2016년 12월 31일 장부가액이 ₩1,034,705일 때, 표시이자율과 2017년 12월 31일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① 표시이자율: 10%, 장부가액: ₩1,018,176

② 표시이자율: 10%, 장부가액: ₩1,019,678

③ 표시이자율: 12%, 장부가액: ₩1,018,176

④ 표시이자율: 12%, 장부가액: ₩1,019,678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채의 유효이자율법에서 1차 연도 장부가액 변동으로 표시면자율을 역산하고, 그 표시면자율로 2차 연도 말 장부가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액면금액: 1,000,000원
- 발행가액: 1,049,732원
- 유효이자율: 10%
- 2016년 12월 31일 장부가액: 1,034,705원
- 만기: 3년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사용할 공식

유효이자 = 기초 장부가액 × 유효이자율
할증상각액 = 액면이자 - 유효이자
기말 장부가액 = 기초 장부가액 - 할증상각액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발행가액이 액면금액보다 크므로 할증발행 사채이다. 따라서 매기 장부가액은 액면이자와 유효이자의 차이만큼 감소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16년의 장부가액 감소액은 1,049,732원 - 1,034,705원 = 15,027원이다. 이 금액이 2016년 할증상각액이다.
2. 2016년 유효이자는 1,049,732원 × 10% = 104,973.2원이므로 반올림하면 104,973원이다.
3. 액면이자는 유효이자 + 할증상각액이므로 104,973원 + 15,027원 = 120,000원이다. 따라서 표시면자율은 120,000원 ÷ 1,000,000원 = 12%이다.
4. 2017년 유효이자는 1,034,705원 × 10% = 103,470.5원이므로 반올림하면 103,471원이다.
5. 2017년 말 장부가액은 1,034,705원 + 103,471원 - 120,000원 = 1,018,176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장부가액 1,018,176원은 맞지만 표시면자율 10%가 틀리다. 2016년 할증상각액 15,027원과 유효이자 104,973원을 합한 액면이자가 120,000원이므로 표시면자율은 12%이다. 틀린 표현은 "10%"이고, 올바르게는 "12%"이다.
② X: 표시면자율 10%가 틀렸고 장부가액 1,019,678원도 틀리다. 1,019,678원은 2016년의 할증상각액 15,027원을 2017년에도 그대로 빼서 나온 값인데, 유효이자율법에서는 2017년 유효이자를 먼저 다시 계산해야 한다. 올바르게는 "표시면자율 12%, 장부가액 1,018,176원"이다.
③ O: 표시면자율은 12%이고 2017년 12월 31일 장부가액은 1,018,176원이다. 2016년 말 장부가액으로 다시 유효이자를 계산한 뒤 액면이자 120,000원을 차감하면 일치한다.
④ X: 표시면자율 12%는 맞지만 장부가액 1,019,678원이 틀리다. 2차 연도에도 1차 연도 상각액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1,034,705원에 대해 10% 유효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틀린 표현은 "1,019,678원"이고, 올바르게는 "1,018,176원"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1차 연도 상각액 15,027원을 2차 연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데 있다. 유효이자율법은 매기 기초 장부가액이 달라지므로 유효이자와 할증상각액도 매기 다시 계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채 계산형 문제는 먼저 발행가액과 기말 장부가액의 차이로 상각액을 잡고, 유효이자로 액면이자를 역산한 뒤, 다음 연도에는 새 기초 장부가액에 유효이자율을 다시 곱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할증발행 사채는 표시면자율 > 유효이자율이고, 장부가액은 매기 감소한다.

NoteBase